

보도자료

2010년 9월 16일(목)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통신정책국 통신이용제도와 최성호 과장(☎750-2550)
통신이용제도와 류신욱 주무관(☎750-2555) movie@kcc.go.kr**SKT 가족형 결합상품 이용약관 인가**

**- KT, LGU⁺ 이어 SKT도 가족단위 유무선 결합상품을
출시함으로써 본격적인 결합상품 요금 인하 경쟁 돌입 -**

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최시중)은 SKT가 신청한 가족형 유무선 결합상품 'TB끼리 온가족 무료' 상품의 이용약관을 9월 14일 인가하였다.

당초 7월 14일 SKT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등 신규 요금제를 발표하면서 이동전화 회선수에 따라 인터넷, 집전화 등 유선상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유무선 결합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.

그러나, 유선상품의 무료제공의 경우 통신시장의 공정경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SKT는 유무선을 동일하게 할인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변경하여 방통위에 인가 신청하였다.

SKT의 이번 상품은 각 상품별로 정해진 금액을 할인하는 구조로, 총 할인액은 이동전화, 집전화 등 개별상품 요금의 비중에 따라 각각 할인하게 된다.

<“TB 끼리 온가족 무료”>

이동 회선수	이동전화	집전화	초고속인터넷	총 할인액
2회선	실제요금	무료 200요금제 (8,000)	-	8,000원
3회선	실제요금	-	스마트 다이렉트 (20,000원)	20,000원
4회선	실제요금	무료 200요금제 (8,000)	스마트 다이렉트 (20,000원)	28,000원

※ 총 할인액은 개별상품 요금의 비중에 따라 할인된 금액의 합입니다.

예) 이동전화 요금이 32천원, 집전화 8천원일 경우 총 할인액 8천원을 4:1로 배분하여 이동전화를 6,400원, 집전화를 1,600원을 할인함

방통위는 SKT의 이번 상품이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면서 상반기 KT 올레통, LGU+의 ‘온가족은 요’에 이어 SKT도 가족단위 결합상품을 출시함으로써 본격적인 결합상품 요금인하 경쟁에 돌입하였다고 해석하였다.

방통위는 향후 결합판매 관련 규제완화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결합판매 활성화 추진함으로써 가계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 끝.